

이번 장편 애니메이션 심사는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작품들로 한 작품 한 작품들이 훌륭해서 우열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. 특히 극장용 장편 뿐 아니라 시리즈로 만들어진 작품들로 각 작품들의 색깔이 매우 다르고 순수 창작부터 웹툰, 연극등 장르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작품들이 지원되었습니다. 이러한 작품들을 심사위원들이 각 각의 작품 특성과 개성을 고려하며 판단하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평가하였다고 생각합니다.

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을 받게 된 계기를 통하여 많은 펀드 지원을 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.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

아쉽게도 이번 사업에 지원받지 못한 작품들 또한 작품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단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문화 사업에서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. 부득이하게 경쟁을 하여 판단을 하게 되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원 안 된 것에 대하여 창작하시는 여러 감독님 들과 제작자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.